新羅王室의 親族體系

李 光 奎*

序

韓國의 古代社會는 親族集團인 氏族社會를 基盤으로 하면서 發達하여 온 것으로 發達段階로서는 氏族, 部族, 部族國家, 部族聯盟, 古代國家의 다섯 段階로 發展하였다고 본다.

例컨대 金哲埈敎授에 의하면 古代韓國社會의 基礎를 이루고 있는 氏族集團의 例를 後進地域인 濊에서 구하여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同姓不婚多忌諱 疾病死亡 輒捐棄舊宅 更作新居"(魏志 東夷傳 濊條)이란 文句를 氏族集團의 효시로 삼았다. 이에 의하면 氏族은 姓을 갖고 族外婚의 單位를 이루고 있으며, "山川各有部分"이라 말하듯 各氏族集團은 區分된 生活圈을 갖고 있고, "不得忘相涉入"이라 하듯이 他氏族生活圈 內에 들어가 經濟活動을 할 수 없으며, "多忌諱"라고 말하듯 氏族은 많은 禁忌를 갖고 있다. 金敎授는 이러한 濊의 社會를 氏族制社會의 末期에 속하든가 氏族制社會時期를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氏族制遺制를 아직도 간직한 社會로 보았다. (金哲埈1968 : 64)

扶餘나 高句麗 社會는 濊와 같은 氏族制社會의 基盤에서 새로운 家父長的 大家族이 成立을 보면서 成長하였으니 例컨대 扶餘는 隷民을 支配하는 族長들의 部族이 몇개 합쳐 部族國家를 이룩한 것이며 이러한 주위의 部族國家와 中央의 部族이 聯盟하여 이른바 扶餘의 五部族聯盟을

* 서울大 社會科學大學 副敎授(人類學)

成立한 것으로 보았다.(金哲埈 1975 : 275) 그리고 扶餘나 加耶는 이러한 部族聯盟段階에까지는 이르렀으나 그 以上 發展하지 못하였음에 比하여 新羅와 高句麗는 이 段階에서 한 段階 더 나아가 古代國家를 形成한 것이다. (金哲埈 1975 : 276)

古代史에서 볼 수 있는 部族聯盟이나 古代國家가 모두 氏族을 單位로 하는 部族의 上位에 組織된 것이라면 氏族으로 불리우는 親族集團이야말로 古代社會의 基礎單位가 되는 것이며 基礎單位로서의 親族集團의 理解야말로 韓國의 古代社會를 理解하는 基本이 될 것이다.

親族集團이라 하면 그 集團의 內容, 構造, 範圍, 機能 등이 問題된다. 물론 이러한 內容들이 固定不變하는 것이 아니며 時代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親族集團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問題를 本格的으로 硏究한 것은 新羅社會의 資料를 人類學的 方法으로 分析한 金哲埈敎授의 分析이 처음가는 硏究였다.

金哲埈敎授는 五服制度가 成立하는 高麗 成宗 以前의 三國時代 新羅의 親族集團을 이른바 七世親族集團論을 主唱하였다. 金敎授의 七世親族集團論이란 이러하다. 金石文資料에서 文武王 13年에 彫刻된 것으로 推定되는 癸酉銘阿彌陀佛三尊四面石像銘名에 "七世父母"라는 것이 있고 神文王 9年에 製作된 것으로 推定되는 己丑銘阿彌陀佛像及諸佛菩薩像銘에도 "七世父母"란 말이 있다. 또 佛經에 七世父母에 關한 記事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七世를 착안하였다.(金哲埈 1968 : 67) 또 聖住寺郞慧和尙碑文에 武烈王의 八代孫인 郞慧和尙이 武烈王의 七代孫인 그의 父 範淸때에 族降一等하여 六頭品이 된 것은 七代同一血緣集團의 原則에 의한 것이라 한다(金哲埈 1968 : 67) 그 뿐만이 아니라 文獻資料에서 奈勿王 以前의 金氏祖上과 昔氏祖上을 七代씩만 記錄한 것은 奈勿도 당시 七代祖를 같이하는 親族이 하나의 親族集團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다.(金哲埈 1968 : 67, 同 1975 : 282)

이러한 金敎授의 七世親族集團論에 대하여 懷疑를 表示한 것이 李佑

成教授이다. 李教授는 佛教에서 말하는 七世니 二世니 하는 世는 父, 祖 등 代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前生, 後生이라는 生의 意味로서 七生二生등을 말하는 것이니 七世同一親族集團의 根據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李佑成 1974 : 27). 特히 高麗와 新羅의 親族集團에 性格的 差異가 있다한데 대하여 李教授는 懷疑的이며 親族集團이 時代의 經過에 의하여 部分的으로는 다를 수 있고 現象的으로는 다른 것이 있으나 全體的으로, 또 本質的으로는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하였다(李佑成 1974 : 27).

李佑成教授의 이러한 批判은 親族集團을 具體的으로 硏究한 것이 아니라 佛教用語의 解析과 直觀的인 느낌에서의 反問이였다. 보다 具體的인 資料에 立脚하여 다른 理論을 展開한 것이 邊太燮教授의 五世同族論이다.

邊教授는 神文王代에 成立된 五廟制의 性格과 形成過程을 分析하여 新羅下代의 五世同族論을 主唱하였다. 즉 邊教授에 의하면 31代 神文王때에 成立된 五廟制란 太祖大王, 眞智大王, 文興大王, 太宗大王, 文武大王의 五位를 奉祀하는 家廟制로서 文武大王은 考, 太宗大王은 祖, 文興大王은 曾祖, 眞智大王은 高祖로서 이른바 二昭二穆에 다시 太祖大王을 合한 五位이며 이것은 眞智大王을 高祖로 하는 五世同族을 表示한 것이라 한다(邊太燮 1964 : 67)

神文王때에 成立한 五廟制가 36代 惠恭王때에 이르러 太宗, 文武의 兩廟를 不遷의 位로 하고 直系로는 一昭一穆을 모시는 變形으로 되었다가 40代 哀莊王에 이르러 太宗, 文武 兩廟를 別立함으로써 五廟制가 確立하게 되고 이것이 後代까지 繼續된다(邊太燮 1964 : 72). 이러한 五廟制의 變遷보다 重要한 것은 五廟制의 成立이다.

五廟制의 成立에 關하여 邊教授는 이렇게 보고 있다. 즉 五廟制 自體는 비록 唐의 影響이지만 그것이 傳來 成立될려면 이곳에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社會的 素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點을 强調하고 五廟制를 實施한 新羅가 骨品, 王族中心의 社會에서 家祖中心의 社會로 轉換하고

있음을 前提로 하고 新羅의 社會發展을, 骨을 意識하는 骨品社會에서 族을 意識하는 社會, 그리고 다시 家를 意識하는 社會로 發展하여 갔음을 始祖廟, 神宮, 그리고 五廟制로 說明하였다(邊太燮1964 : 75).

新羅 下代에 成立된 五廟制에 의한 邊教授의 五代同族論에 對하여 이것을 認定하면서 金哲埈教授는 이렇게 말하였다. 즉 五代同一親族集團을 말하는 高祖 以下 四代奉祀는 新羅親族編制에 없었던 것이 이때 새로 創造된 것이 아니라 전부터 있었던 小宗族(minor lineage)에 지나지 않은 것이 家父長家族編制의 强化를 目的으로 하여 五廟制와 合致하게 되고 이에 따라 親族集團觀念上의 變動이 있을 뿐이라 하였다(金哲埈 1975 : 171).

新羅의 親族集團을 宗族으로 把握한 金教授는 金氏族을 包含하는 가장 큰 單位를 最大宗族(maximal lineage), 七世同一親族集團을 大宗族(major lineage), 五代同一親族集團을 小宗族(minor lineage), 그리고 祖父까지의 血緣을 最小宗族(minimal lineage)이라 하였다(金哲埈 1968 : 72) 이와같은 親族集團 內의 여러 下部單位를 分別하면서 金教授는 다시 五代同族集團에 대하여 이것이 新羅時代에는 社會的인 編制單位에는 이르지 못하고 身分이나 職業을 決定하는 基準이나 政治的 機能은 七代同一親族集團이 基準이 된다고 보았으며 五代同一親族集團은 神文王代에 發芽를 보았으나 羅末의 社會的 陣痛을 겪고 高麗初에 와서야 獨自的社會編制의 單位가 되었다 한다(金哲埈 1968 : 73).

金教授의 七代同族論이나 邊教授의 五代同族論이 新羅社會를 일관한 親族體制를 說明하는 槪念道具는 아니라 하더라도 新羅의 社會的 基層을 說明하여보려는 試圖로서 높이 評價하여야 될 硏究들이다. 그러나 兩教授의 硏究에는 많은 問題點들을 갖고 있다.

邊教授의 경우 五廟制를 基礎로 하는 五代同族論은 同族의 範圍로서의 五代 즉 堂內親의 範圍와 堂內親의 宗教的 機能을 把握한 공헌은 있으나, 이것은 同族集團을 個人中心的 親屬(ego centered kindred)의 範

圍로 把握한 것이지 集團으로 說明된 것이 아니다. 氏族이건 親族이건 集團으로 불릴려면 金敎授가 指摘하듯 範圍뿐만이 아니라 機能을 가져야 한다. 特히 邊敎授에게 있어 五廟制를 形成한 家라는 槪念과 그것에 앞서는 族이라는 槪念이 무엇을 意味하는가 하는 것이 重要한 것이었으나 이것에 關한 說明이 分明치 않은 것이다.

金敎授의 硏究는 親族集團의 範圍와 함께 親族集團의 機能을 說明하여 新羅社會의 理解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特히 社會人類學者 에반스-프리챠드(E. E. Evans-Pritchard)의 宗族槪念과 宗族의 分割體系(segmentation system) 理論을 導入하였다는 것은 古代社會硏究에 進一步라 하겠다.

그러나 問題는 바로 이러한 宗族槪念으로 新羅의 資料를 分析하는데 있다 하겠다. 人類學에서 宗族(lineage)이라 하면 單系出系集團(unilineal descent group)인 同時에 外婚制(exogamy)를 特色으로 한다(Radcliffe-Brown A. R. 1967, Murdock G. P. 1968 : 235, Evans-Pritchard E. E. 1968 : 151, Firth R. 1968 : 213).

新羅의 親族集團을 宗族으로 把握하였을 때 問題가 되는 것은 親族集團 內의 族內婚(endogamy)이다. 新羅 中古의 王室婚姻을 硏究한 李基東氏는 그것이 族內婚이라는 事實만 除外한다면 宗族이란 槪念의 普遍的 原理를 가졌다고 보고 族內婚이 問題의 核心이라 하였다(李基東 1975 : 44) 여기에서 李基東氏는 同族(clan)이라는 槪念을 使用하였다. 同族에는 李氏가 말하듯 非外婚的 同族(non-exogamous caln)이 存在할 뿐만이 아니라 同族(李基東氏는 氏族이라 함)內에는 宗族(lineage)이 있어 血緣集團으로서의 意識을 갖는다(李基東 1975 : 53).

同族(clan)이라 하면 물론 非外婚的 同族도 있지만 人類學 一般에서는 역시 外婚制를 基礎로 하는 하나의 居住規定과 하나의 出系律에 의하여 이룩된 親族集團으로 보고 있다(Murdock 1946 : 66, Firth R. 1651 : 33 Schusky E. L. 1966 : 73), 特히 一部 人類學者는 母系的인 親族集團만을

同族이라 하고 이에 對하여 父系的인 것을 親種(gens)이라 하기도 한다(Gillin 1948 : 439). 同族은 特히 宗族과의 區別에서 同族은 始祖가 分明한데 대하여 同族의 神話的 始祖로서, 다시 말하면 始祖가 具體的인 人物이 아닌 것을 共同의 祖上으로 하는 親族集團이다(Fox R. 1967 : 90, Schusky E. L. 1966 : 73). 同族(Clan)과 宗族(lineage)을 이렇게 區別한다면 宗族內의 族內婚問題를 重要視하는 李基東氏의 分析概念이 金哲埈敎授의 分析概念보다 오히려 모호하여진다. 물론 李氏가 同族의 概念과 宗族의 概念을 잘못 理解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잘못 利用한 것이다.

親族集團을 問題삼을 때 集團의 範圍나 機能이 重要한 것이지만 더욱 重要視되는 것은 集團構成員의 歸屬(affiliation)과 出系(descent)의 問題이다. 이것이 分明히 把握되어야만 그 集團이 同族이냐 宗族이냐 혹은 다른 것이냐 하는 것을 理解할 수 있다. 더욱이 古代社會의 親族集團에서는 이런 項目들이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그것은 現在 우리가 갖고있는 親族集團과 古代의 그것이 다르기 때문이며 現在의 親族集團은 宗族的 親族集團이기 때문에 歸屬과 出系가 같은 것이지만 古代에도 이것들이 반드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古代의 親族集團을 올바로 理解할 수 없다.

歸屬(affiliation)이란 集團에 속하는 個人이 어떻게 그 集團에 속하느냐를 問題삼는 것이다. 훠쓰(R. Firth)에 의하면 歸屬은 出系와 다른것으로 出系가 祖上을 中心으로 하는 繼承을 問題삼는데 對하여 歸屬은 個人을 中心으로 하는 것이고 集團의 加入을 問題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歸屬을 決定的 歸屬(definitive affiliation)과 意願的 歸屬(optative affiliation)으로 나누어 前者를 歸屬에 個人의 意思가 無視되는데 反하여 後者는 個人이 歸屬을 定하는 것이라 하였다(Firth R. 1968 : 215). 決定的 歸屬은 現代 우리 나라의 親族集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出系律과 더불어 이미 決定이 되어 있어 婚姻한 夫婦가 一方에 歸屬하는 것

이다. 이와는 달리 意願的 歸屬에서는 婚姻한 夫婦가 居住를 決定할 수 있다. 따라서 意願的 歸屬이 存在하는 社會에서는 外叔處制(avunculocal)나 母處制(matrilocal) 居住規定과 같이 出系律과 居住規定이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親族體系硏究는 親方律(mode of laterality)과 出系律(mode of lineality)을 明確히 區分한다.

意願的 歸屬이 存在하는 社會의 親族集團은 흔히 集團의 內部에 分枝現象(branch character)이 많고 非外婚的 性格을 가졌다. 또 이곳에서는 個人의 意思에 따라 居住가 決定되고 이에따라 出系律을 規定하기에 이것을 選系出系(ambilineal descent)라 하는 사람도 있고. 女系出系(cognatic descent)라 하는 사람도 있다. 分枝現象 非外婚律 選系出系律을 가진 親族集團을 宗族(lineage)과 區別하기 위하여 同屬(ramage)이란 用語를 使用한다(Murdock G. P. 1968 : 249, Firth R. 1968 : 215, Fox R. 1967 : 153).

이곳에 同屬(ramage)이란 槪念을 紹介하는 것은 親族集團의 많은 類型들, 例컨데 宗族(lineage), 同族(clan), 氏族(sib), 協族(phratry), 半族(moiety), 區族(deme), 同種(sept), 同屬(ramage)의 여러 類型 中 新羅社會의 親族集團을 理解하는데 同屬槪念이 가장 有利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新羅의 親族集團이 바로 同屬이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親族集團이란 用語를 계속 使用하겠으나 이것은 宗族(lineage)의 槪念보다 同屬(ramage)의 槪念을 염두에 두고 使用하는 것이라고만 理解되었으면 한다.

同屬이란 槪念을 이와 紹介하는 길에 이것에 關한 具體的인 事例를 紹介하여 新羅의 親族集團을 分析하는데 하나의 模型(model)으로 삼을가 한다. 굳이나후(W. H. Goodenough)가 硏究한 길버트島(Gilbert I.)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類型의 親族集團이 있다. 하나는 우트우(utuu)라 부르는 것이니 이것은 父系, 母系 全部를 包含하는 親屬(kindred)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集團이라기 보다 우리 나라의 親族, 外戚, 姻戚

을 包含하는 親戚이란 槪念과 類似하다(Goodenough W.H. 1968 : 198).

둘째 集團은 오오이(ooi)라 부르는 것이니 이것은 한 先祖가 남긴 土地를 分配받은 그의 後孫이 이룩한 集團이다. 그 先祖를 父라고 가정하면 父의 土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男女의 區別이 없다. 따라서 父의 死後에 出嫁한 女息도 父의 土地의 一部를 받는다. 물론 子息이 女息보다 많이 받으며 長子는 次三男보다 많이 받는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전부를 相續받고 그 다음 代에는 그녀의 子女가 相續받는다. 따라서 子女들은 父에서 받는 것과 母에서 받는 것이 있다. 하나의 規定이 있다면 母에서 받은 土地는 父의 親族에게 주지 않고 相續받을 사람이 없으면 母의 오오이에 돌려 준다. 오오이는 出嫁한 사람까지 包含을 하기 때문에 한 地域에 모여사는 地域集團은 아니다. 한 오오이가 지속되는 것은 그 先祖의 記憶이 남을 때까지이다. 이것을 굳이나후는 非限定 出系集團(unrestricted descent group)이라 하였다(Goodenough W. H. 1968 : 199).

셋째 集團은 므외엔가(mweenga)라 부르는 것이니 이것은 흔히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 擴大家族(extended family)이다. 즉 婚姻한 子女가 父母와 같이 同一한 居住地에서 하나의 集團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婚姻한 子女는 간혹 婦處制(uxorilocal) 또는 母處制(matrilocal)을 擇하기도 하지만 大部分은 夫處制(virilocal) 또는 父處制(patrilocal)를 取한다(Goodenough W. H. 1968 : 198).

넷째 集團은 브워티(bwoti)라 부르는 것이니 이것은 單系的 出系集團이면서 土地와 共同集合所의 座席과 關係되어 있는 것이다. 한 地域社會(community) 內에는 共同集會所(meeting house)가 있고 그곳에는 한 親族集團에 속하는 指定座席이 있으며 이것에 딸린 土地가 있다. 이 座席의 保有者는 그 土地를 子孫에게 相續시키면 自動的으로 그 座席도 相續된다. 만일 座席을 保有한 사람이 그에 딸린 土地를 두 아들에게相續하면 두 아들은 座席 하나를 더 만들어 各各 하나의 座席을 갖는다.

그리고 이들은 父를 中心한 부워티란 集團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土地가 世代를 거듭하면 無限히 細分될 것이지만 實際는 그렇지 않고 特定한 子孫에게만 相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여 數代를 가면 한 사람이 몇개의 부워티의 權利를 가질 수 있다. 그러한 한 사람은 하나의 座席밖에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워티 權利는 潛在的인 것이 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은 가장 有利한 부워티의 座席을 갖고 아들이 여럿이면 各者에게 潛在的이었던 成員權을 나누어 주기도 한다. 이 成員權은 大部分 男子에게 相續시킨다. (Goodenough W. H.1968 : 199)

다섯번째 集團은 카인가(kainga)라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한 先祖의 土地를 그와 同居하는 子女의 子女가 傳해 받음으로서 이룩된 集團을 말한다. 例컨데 婚姻한 夫婦가 婦處制 居住規定에 따라 婦人의 父母와 同居한다고 하자 이때 男子는 自己가 出生한 카인가集團의 土地에 對하여 成員權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成員權은 自己의 子女에게 傳하지못한다. 이 사람의 子女는 母의 카인가集團의 成員權만 갖는다. 다시 말하면 카인가는 親族集團이되 그 成員權은 父母의 性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父母의 居住에 의해 決定된다. 居住規定은 大部分 夫處制이지만 婦處制도 正規的인 것으로 생각한다(Goodenough W. H. 1968 : 201).

이와같이 여러 類型의 親族集團이 各各 別個의 것이지만 構成員은 하나의 集團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同時에 몇個의 集團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復雜하게 얽히어 있다. 그러나 이곳의 하나의 特徵이 있다면 集團의 成員權이 모두 土地와 關係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出系律, 歸屬律이 單系가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의 特色이라 하겠다.

이곳에서 同屬(ramage) 또는 女系的 親族集團(cognatic descent group)이라 부르는 親族集團의 한 例를 보았다. 女系親族集團이라 하여도 필리핀의 사가다 이고롯트族(Sagada Igorot) 뉴기니아의 마에—엔가族(Mae-Enga) 뉴지일랜드의 마오리族(Maori)등 部族에 따라 약간의 差異가 있다(Fox R. 1967 : 164～174). 따라서 위의 길버트島의 事例를 하

나의 模型이라 한 것은 어디까지나 新羅社會의 親族集團을 分析하는데 보다 넓은 親族集團에 關한 人類學的 知識을 活用하자는 意味에서이지 新羅의 親族集團을 길버트島型의 親族集團에 맞추자는 것은 아니다.

問題는 보다 폭넓은 人類學的 知識을 基盤에 두고 新羅社會에 存在하였던 親族集團이 어떤 原理에 의하여 形成된 것이며 그 範圍는 어떠하고, 集團에의 歸屬律은 어떤 原理에 의하며, 集團內의 分岐現象은 어떠하고, 出系律은 어떤 原則에 의한 것이며, 親族集團은 어떤 機能을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包括하여 親族體系라 하였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問題는 古代를 代表하는 新羅社會가 어떤 親族體系를 가졌고 그것이 어떻게 變遷하여 갔느냐 하는 것이 된다.

Ⅰ. 上代의 親族體系

新羅史에 있어 上代라는 用語는 三國史記에 使用된 것이며 三國史記에서 上代라 하면 始祖 朴赫居世로 부터 28代 眞德王까지를 包含한다. 이곳에서는 上代를 親族體系의 分析의 편의상 22代 智證麻立干까지로하겠다. 이것은 三國遺事의 上古에 속하는 時期이지만 用語는 三國史記에 따라 上代란 말을 쓰기로 한다.

이 時期에 王歷을 보면 朴氏 王이 7王이고, 昔氏 王이 8王이며, 金氏王이 7王으로 都合 22王이 있었다. 王들을 中心으로 記錄에 의하면 王妃가 17人, 王의 父가 前王이 아닌 사람으로 王의 父가 8人, 王의 母가 9人, 그리고 王妃의 父가 7人이 있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記錄된 이들을 中心으로 親族關係를 分析하되 分析의 편의상 朴氏王室, 昔氏王室, 金氏王室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新羅의 始祖 朴赫居世는 楊山下의 蘿井에서 出生하였다. 赫居世의 出系에 關하여 注目할 것은 그의 出生地에 關한 것과 出生過程으로서의 說話와 그를 發見한 사람인 高墟村長 蘇伐公과의 關係이다. 일찌기 李

丙燾博士는 朴氏, 昔氏, 金氏가 赫居世를 추대한 六村長의 六村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赫居世의 出生地가 及梁部落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朴氏를 及梁部落 出身이라 하였다(李丙燾 1958 : 373). 이와는 달리 金哲埈敎授는 赫居世說話가 하늘로 부터의 異氣와 卵生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赫居世가 朱蒙이나 首露와 같이 土着民이 아니라 流移民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土着族인 慶州一帶의 金部族과 聯盟하였다고 생각한다(金哲埈1975 : 72, 74). 金敎授가 朴氏가 金氏와 聯盟하였다고 생각하는 根據는 三國遺事 赫居世說話의 挾註에 赫居世가 閼英居西干이라 말하였다는 것을 末松保和氏가 朴氏 始祖의 名이 金氏 始祖의 名의 複寫라고 한데에 대하여 反對意思를 表示하면서 나온 것이다(金哲埈1975 : 47). 이상을 추려보면 朴赫居世의 出系에 對하여 李博士의 土着說이 있고 金敎授의 流民說이 있고 末松氏의 金姓複寫說이 있다. 以上의 三說은 朴赫居世의 出系를 全혀 다른데서 求하는 것으로 모두 史料에 立脚한 것이니 李博士는 出生地에 重點을 두었고 金敎授는 出生過程에 그리고 末松氏는 名稱에 重點을 두었다. 이들 여러 說은 一見 모순이 있어 보이나 이것들을 綜合하고 三國史記의 蘇伐公에 關한 이야기를 더하면 朴赫居世의 出系를 이렇게 整理할 수 있겠다. 즉 赫居世가 出生한 地域은 及梁部落에 속하는 楊山下의 蘿井이지만 이곳은 아마도 赫居世의 母의 居住地였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赫居世說話는 그의 出生說話만이 아니라 그의 出系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니 赫居世는 流移民을 父로 及梁部에서 出生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는 出生後 얼마있다가 高墟村長에게 入養되었거나 養育되었을 것이다. 그 후에 赫居世는 閼英과 結婚하였으니 이때에도 婦處制를 取할 可能性도 있다. 그렇다면 그가 自己를 閼英의 居西干이라고 말하여도 不自然스러운 것이 없다. 만일 赫居世가 閼英氏族에 婿로서 婚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閼英과의 婚姻으로 閼英氏族과 同盟體와 같은 긴밀한 關係를 가졌거나 그를 吸收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選處制(ambilocal)와 選系制(ambilineal)로 理解하면 三

國史記와 三國遺事의 모순되어 보이는 諸事項이 無理없이 把握될 수 있다.

赫居世는 出生으로(母를 通해) 及梁部落인 閼川楊山村과 關係를 가졌고 蘇伐公과의 인연으로 (養父關係) 沙梁部落인 突山高墟村과 關係를가졌고 閼英과의 婚姻으로 月城地域과 關係를 가졌으니 親族關係에서 누구보다 優勢한 地位를 가졌다. 이렇게 해서 赫居世는 六村長의 會議에서 六村을 統率하는 王으로 추대되었을 것이다.

赫居世의 死後 그의 아들인 南解가 王位를 繼承하였다. 이것은 親族體系로 말하면 父系繼承이 된다. 그러나 三國史記 卷一 南解次次雄元年條에 보면 南解가 國人의 推薦에 의하여 王位에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南解는 親族集團 內에서는 父의 地位를 繼承하였고 王으로서는 六村長會議와 같은 族長會議에서 推薦된 것이다.

3代 儒理尼師今의 即位도 南解가 即位할 때와 같은 類型의 父系繼承이지만 儒理의 경우는 事情이 약간 달랐으니 儒理에게는 政治的 功獻이 크고 德望이 있는 妹夫(脫解)가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南解가 죽음을 앞에 두고 儒理와 脫解에게 兩者 中에서 年長者가 王位를 繼承하라 하였다. 이에따라 儒理는 脫解에게 王位를 사양하였으니 脫解는 智人임을 齒數로 겨루기를 請하여 결국 儒理가 即位하게 되었다.

昔脫解의 出系는 자못 特異한 것으로 보인다. 脫解는 父를 多婆那國王(혹은 琓夏國王, 花夏國王, 龍城國王, 正明國王)으로 하고 母를 女王國王女(혹은 績女國王의 女)로 하는 王子이면서 出生過程이 奇異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아 海上에 漂流하여 처음에는 金官國에 이르렀으나 이곳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漂流하여 阿珍浦에 이르러서야 老婆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후 楊山下의 瓠公의 집을 빼앗고 南解에게 寵愛를 받아 그의 사위가 되었다.

이러한 脫解의 出系는 分明하고 그의 生涯는 자못 鬪爭的이지만 그 過程을 細密히 分析하면 實은 朴赫居世의 成長過程과 극히 類似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脫解도 赫居世와 같이 流移民으로 新羅에 定着하였으며 赫居世는 出生地가 及梁部落이고 脫解는 到着地가 阿珍浦였다. 그후 赫居世는 高墟村長蘇伐公에 의해 養育되고 脫解는 重臣인 瓠公과 關係를 갖는다. 赫居世는 다음 閼英氏族의 사위로 되는 것 같으며 脫解는 分明히 朴氏王室의 사위가 된다. 이와 같이 赫居世는 溫順한 形態로 表現되고 脫解는 過激한 形態로 表現되었으나 出系律은 같은 類型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脫解는 王의 認定으로 그의 사위가 되고 政治의 重責을 맡았으니 이것을 親族의 次元에서 말하며 婦人을 通하여 朴氏王室集團에 歸屬(affiliation)된 것이다. 當時의 居住規定을 分明히 알 수는 없으나 同屬(ramage)의 槪念에 따르면 脫解가 居住에 있어 婦處制를 取하였을 可能性이 많다. 그것은 同屬集團을 갖는 社會에서 一般居住規定은 夫處制이지만 特히 酋長에 있어서는 그의 사위가 婦處制를 많이 取하는 傾向에서 그러한 可能性을 추출할 수 있다(Goodenough W. H. 1968 : 203).

昔脫解가 南解의 사위가 되고 儒理와 더불어 王位의 競合者가 되었으며 드디어 王位를 繼承한 것을 혹은 朴氏와 昔氏가 王位를 빼앗고 빼앗기는 鬪爭과 對立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申瀅植 1971 : 55, 李德星 1949 : 70) 오히려 當時同屬集團의 性格을 가진 親族集團에서는 歸屬의 過程이 어떠하든 일단 集團構成員이 된 후에는 아들과 사위에 區別을 두지않고 地位의 繼承者로 認定을 한다. 이곳에 연상되는 것이 길버트島 브워티 集團이며 脫解가 王位를 繼承한 것은 朴氏集團의 一員으로 即位한 것이고 따라서 다음 代에 王位가 다시 朴氏에게 繼承되는 것이 全혀 無理없이 行해질 수 있는 것이 된다.

脫解를 繼承하여 即位한 사람이 婆娑尼師今이다. 婆娑를 儒理王의 第二子라고도 하고 혹은 儒理王의 弟인 奈老의 아들이라고도 한다(三國史記 卷一 娑婆尼師今 即位條). 이것은 아마도 三國遺事의 王歷과의 關係에서 婆娑가 儒理의 第二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三國史記의 혹

은 奈老의 子라 한 것은 婆娑가 直系 長子系가 아니라는 것을 强調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婆娑의 親族關係에서 또하나 混亂되는 것은 그의 母와 王의 出系이다 三國史記 에는 母에 關한 記事가 없고 王妃 史省夫人을 許婁葛文王의 女 金氏라 하였다. 三國遺事는 王妃를 史肖夫人이라 하였고 母를 辭要王 즉 許婁王의 女라 하였다. 辭要와 許婁가 同一 人物이고 史省과 史肖가 同一 人物이라면 史省夫人이 三國史記에는 王妃가 되고 三國遺事에서는 王母가 된다. 이것은 큰 混沌이지만 이렇게도 解析할 수 있다. 즉 王母와 王妃가 모두 金氏 氏族에 속하는 사람이며 그것도 상당히 近親關係에 있는 사람이기에 三國史記와 三國遺事가 서로 混沌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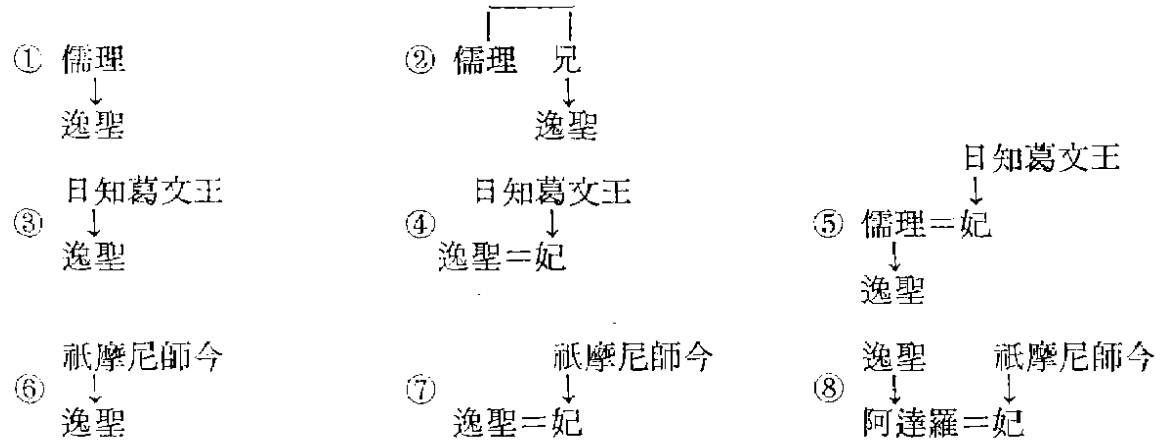
婆娑尼師今은 金氏를 王妃族으로 하고 儒理王의 第二子로 長子인 逸聖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威嚴과 賢明을 理由로 臣僚들에게 推戴되어 即位하게 되었다. 이것은 親族制度의 次元에서 말하면 兄弟相續的 類型이지만 보다 重要한 것은 同一世代의 兄弟와 妹夫사이에서 長幼의 區別없이 賢者가 地位를 繼承하는 地位繼承類型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同世代 優秀者 地位繼承型이라 부르기로 한다.

婆娑의 뒤를 그이 嫡子인 祇摩가 王位를 繼承하였다. 이것은 長子繼承이지 兄弟가 여럿 있는 中에서 長子이기 때문에 王의 地位를 繼承하였는지 分明치 않다.

祇摩를 이어 即位한 사람이 逸聖이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祇摩가 無子이어서 그의 伯父인 逸聖이 王位를 繼承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逸聖을 혹은 日知葛文王의 아들이라 한다. 三國遺事에 의하면 逸聖의 父가 弩禮王(儒禮王)의 兄이라고도 하고 혹은 祇摩王이라고도 한다. 또 三國遺事에는 日知葛文王이 逸聖의 妃의 父로되어있고 王妃가 또한 祇摩王의 女로 되어 있다. 다음 世代에 속하는 것이지만 祇摩王의 女는 三國史記에는 다음 王인 阿達羅尼師今의 王妃로 되어 있다. 이상 逸聖尼師今을 中心하여 그의 出系와 親族關係를 나타내는 人物 儒理, 儒理의 兄

日知葛文王 그리고 祇摩王과 逸聖과의 關係를 보면 別圖 1과 같다.

〈別圖 1〉 逸聖尼師今 關係圖



위 別圖에서 보듯이 逸聖의 父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3人이고 이들은 또 舅父 外祖父 사돈의 關係로도 表示되어 都合 8個의 다른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타당성과 可能性을 보면 이러하다. 즉 一說과 二說은 父子의 關係가 伯父 姪子의 關係로 되어 있다. 이들은 父系原理에 의한 繼承이란 점에 類似한 것이지만 二說의 경우 앞서 婆娑가 即位할 때 太子 逸聖이 있었으나 婆娑가 王位를 繼承하였다는 記錄으로 보아 二說보다는 一說이 史記의 內容上 有利한 說이라 하겠다.

그러나 一說을 따를 경우 儒理 후에 婆娑와 祇摩가 王位를 繼承하였기 때문에 兩王의 在位年限을 合하면 55年이 된다. 特히 脫解의 在位年限까지를 合친다면 79年의 간격이 있어 逸聖을 儒理의 子라고 보기가 自然스럽지 못한 느낌이 있다(金哲埈 1975 : 166, 金光洙 1973 : 370). 이에 關하여는 잠시 뒤에 보기로 한다.

三說과 四說 그리고 五說은 逸聖을 日知葛文王과 關係짓는 것이다. 日知葛文王이 三說에 의하면 逸聖의 父가 되고 四說에 의하면 舅父가 되고 五說에 의하면 外祖父가 된다. 日知葛文王의 姓이 金氏라는 것(遺事 王歷에서 婆娑尼師今의 母가 日知의 女라 생각됨)으로 미루어 日知는 逸聖의 父가 될 수 없어 三說은 不當하다고 생각된다. 같은 理由에서 四說도 當然性이 희박하고 日知는 逸聖의 外祖父라 하는 五說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六說, 七說, 八說은 逸聖과 祇摩의 關係를 말한 것들이다. 六說은 잠시 뒤로 미루고 七說을 보면 祇摩의 女가 逸聖의 妃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一說에서 본 바와 같이 年令의 差異가 심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七說보다는 八說이 自然스러 보인다. 이것을 解決하는 것은 結局 六說이라 하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問題는 一說이냐 六說이냐에 있다. 一說에 따르면 年代의 問題가 있고 六說에 따르면 祇摩가 無子라는 것과 儒理가 逸聖의 父라는 두文句 都合 三文句를 否認하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六說을 따를 경우 三國史記의 內容을 否認하는 것이 되고 一說을 따르면 年代만을 不信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立場에서 古代史가 年代를 正確히 分別할 可能性이 적다는 점으로 보아 一說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려 한다. 이러한 立場에서 逸聖의 出系와 他人과의 關係를 整理하면 逸聖이 儒理의 長子이고, 日知는 그의 外祖父, 祇摩는 그의 姪子이자 사돈이 되는 것이다.

逸聖尼師今이 돌아가자 그의 長子인 阿達羅尼師今이 即位하여 王位를 繼承하였다. 그리고 阿達羅가 돌아가자 아들이 없어 昔氏인 伐休尼師今이 王位를 繼承한다.

以上 朴氏王室時代는 모두 八王이 繼承하였으며 그中 朴氏가 七人 昔氏가 一人이었다. 그곳에 繼承律은 男系로 血緣的 原理와 同世代 優秀者 繼承의 原理를 갖고 王의 地位가 繼承되었다. 血緣原理는 父子繼承이며 七件의 繼承中 6件이 父子繼承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南解, 祇摩, 阿達羅의 三人만 父子繼承에 의해 王位를 繼承하였고 儒理, 脫解, 婆娑逸聖의 四人은 優秀者繼承原理에 의해 王位를 繼承한 것이 된다. 따라서 父子繼承의 事例에도 優秀者가 있었다면 優秀者繼承原理가 作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朴氏親族集團은 同屬集團의 性格을 가졌으며 特히 歸屬關係에서도 그러하다. 이것은 昔脫解의 事例에서 볼 수 있다. 昔脫解의 居

住地가 朴氏居住地에 近接하여 있었다는 것(李德星 1949 : 61)은 脫解가 選定居住規定(ambilocal)에 따라 婦處制를 擇하여 朴氏集團에 歸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地位의 繼承이 選系出系(ambilineal descent)로 繼承되었다. 그러나 姓의 繼承은 父系血緣의 原理를 따랐기 때문에 脫解의 子孫은 그대로 昔氏의 姓을 繼承하였다. 이곳에 血緣의 表示로서의 姓의 繼承과 社會的 地位의 繼承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金哲埈敎授가 말하듯 漢字式 姓이 使用되기 이전에는 하나의 親族共同體가 住居地의 名稱을 姓과 같이 使用하였다면(金哲埈 1968 : 76) 昔脫解가 婚前의 自己가 속했던 親族集團의 成員權을 갖고 있으면서 婚後의 親族集團의 一員으로 活動한 것이 되고 이것은 전형적 女系出系集團(cognatic descent group)의 性格이 있음을 말하여 준다.

朴氏王室時期에 親族集團이 選系出系的 性格을 가진 것은 王母의 父 王妃의 父를 葛文王으로 책봉한 것이다(李基白 1975 : 21) 이 時期에 姓名이 分明한 日知, 許婁, 摩帝가 모두 葛文王이다.

朴氏 親族集團의 또하나의 特性은 集團 內部의 下部單位가 存在하는 것이다. 儒理의 두 아들이 各己 分技 또는 分家하면서 別居集團을 形成하여 王位를 繼承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祇摩의 女가 阿達羅의 妃가 된 것과 같이 하나의 小集團으로서 婚姻交換의 主體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集團 內部의 分技現象 또는 同屬集團의 特色이다(Firth R. 1968 : 215).

한편 朴氏 親族集團은 內部에서 分技現象을 이루면서 分技된 小集團이 婚姻으로 結束하는 반면 外部에 對하여는 王妃族 金氏에 對하여 하나의 單位로서 機能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朴氏 親族集團은 하나의 集團으로 金氏 親族集團에게서 女子를 받고 昔氏 親族集團에게 女子를 주는 一般交換的 婚姻體系의 單位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單位로서 機能하는 朴氏 親族集團은 五代가 하나의 單位를 이룬 것이다. 앞서 보아온 바와 같이 金哲埈敎授는 逸聖을 祇摩의 子로

보아 朴氏 世系가 七世임을 論한바 있다(金哲埈 1975 : 166). 그러나 이미 본 바와 같이 逸聖은 祇摩의 子라기 보다 儒理의 子이며 이에 따라 朴氏集團은 七代가 아니라 五代同族集團임을 알 수 있다.

朴氏集團의 뒤를 이어 王位를 繼承하여간 昔氏集團을 金敎授는 脫解부터 16代 汔解까지로 보고 이것이 七代를 繼續하였기 때문에 七世同族論의 효시로 삼았다(金哲埈 1975 : 166). 그러나 脫解를 앞서 본 바와 같이 朴氏集團의 一員으로 歸屬하였기 때문에 實際 王位를 繼承시키기 始作한 사람은 伐休이다. 따라서 9代 伐休尼師今에서 始作된 昔氏集團은 5代를 繼續한 五世同族集團인 것이다.

阿達羅尼師今이 아들이 없이 돌아가자 昔氏인 伐休尼師今이 即位하였다. 阿達羅가 無子라는 것이 하나의 條件이 되겠으나 그것보다는 伐休가 天氣를 占쳐 水害와 旱害를 미리 알고 사람의 바르고 그른 것을 아는 聖人이기 때문에 國人의 推載로 王位를 繼承하였을 것이다. 伐休의 即位로 朴氏 五世親族集團에서 昔氏集團으로 王位가 移讓되었다. 伐休는 脫解의 子인 仇鄒의 아들이며 母는 金氏 只珍內禮夫人이니 姓은 父系로 傳承받고 王의 地位는 朴氏에게서 繼承받았다.

伐休의 뒤를 이어 即位한 사람이 伐休의 孫子인 奈解이다. 伐休에게는 太子 骨正이 있고 第二子 伊買가 있었으나 모두 일찍 死亡하였고 骨正의 아들인 大孫이 있었으나 伊買의 아들인 奈解가 王位를 繼承하였다. 이때의 條件이 大孫이 어리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理由보다는 同世代 優秀者 繼承의 原理가 이곳에도 作用하였음을 볼 수 있다.

奈解를 繼承한 사람이 그의 四寸이며 사위인 助賁尼師今이다. 그는 또한 伐休의 長子인 骨正의 아들이기도 하다. 奈解가 유언하기를 사위 助賁으로써 王位를 繼承하라고 하여 助賁의 繼承을 舅婿關係로 볼 수 있으나 選系出系律에 의하면 이것도 優秀者 繼承原理라 할 수 있으며 特히 奈解와 助賁이 同世代人이고 그들의 祖父인 伐休의 立場에서 보면 同世代 優秀者 繼承의 原理에서 第二人이 繼承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解釋은 助賁의 뒤를 繼承한 沾解尼師今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

沾解의 뒤를 繼承한 사람이 助賁의 사위인 金氏 味鄒尼師今이다. 味鄒가 即位한 것은 沾解에게 아들이 없다는 理由가 있었으나 助賁에게는 아들이 있었으니 味鄒의 即位는 同世代 優秀者 繼承의 原理에 따라 婦處制에 의하여 昔氏 同屬集團에 歸屬한 味鄒가 王位를 繼承한 것이 된다. 이것은 昔脫解가 朴氏集團에 歸屬한 것과 같은 類型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王位가 昔氏에게 繼承되는 것이다.

地位의 繼承과는 달리 味鄒는 血緣上으로 金氏系이며 姓으로 추종하여 味鄒는 閼智의 七世孫이다. 즉 閼智, 勢漢, 阿道, 首留, 郁甫, 仇道 味鄒가 그 系統이다. 味鄒가 閼智의 七世孫이라는 것으로 金教授는 七世同族論의 한 證據로 삼고 있다(金哲埈 1975 : 167) 그러나 味鄒가 閼智의 七世孫이라는 系譜의 代數는 얼마든지 길거나 짧게 열거할 수 있는 것이며 代數의 數가 機能集團으로서의 親族集團의 性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味鄒의 뒤를 繼承한 사람이 儒禮尼師今이다. 儒禮는 助賁의 長子로서 역시 助賁의 立場에서 보면 同世代 優秀者 繼承의 原理에 따라 第二人者가 王位를 繼承한 것이 된다.

基臨尼師今은 儒禮의 뒤를 繼承한 사람이다. 그는 前王인 儒禮의 弟인 乞淑의 아들이니 親族關係로는 王位가 叔姪關係로 繼承된 것이지만 儒禮에게 아들의 有無가 分明하지 않고 基臨의 性品이 너그럽다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도 優秀者繼承原理가 作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基臨의 뒤를 繼承한 訖解尼師今은 奈解의 孫子이며 그의 父는 于老이다. 따라서 前王인 基臨과는 8寸兄弟가 된다. 訖解가 王位에 오른 經緯를 보면 基臨이 돌아가자 于老가 있었으나 于老는 그의 아들 訖解가 남달리 容貌가 수려하고 心膽이 明敏하며 爲事에 유달리 뛰어나기에 그를 推戴하여 王位를 繼承케 하였다. 이것은 父가 生存함에도 불구하고 族內에서 優秀한 사람을 王位를 繼承케한 가장 좋은 例일 것이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優秀者 繼承의 原理이며 그것이 基臨과 訖解가 八寸이라는 것으로 미루어 伐休를 始祖로 하는 五世 同高祖 八寸의 範圍 즉 五世同族 內에서 配定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五世親族集團이 王位를 繼承한 集團으로 存在한 것을 잘 表示한 것이 訖解의 即位라 하겠다.

昔氏 親族集團은 五世代 內에서 8王이 存在하였고 이들 사이의 王의 地位繼承이 例外없이 優秀者 繼承의 原理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昔氏集團이 朴氏集團보다 더 철저하게 同屬集團의 性格을 갖고 있음을 말하여 준다.

昔氏 親族集團의 다른 特色은 集團 內部의 下部集團의 分枝現象과 近親婚이다. 五世親族集團 內部의 下部集團의 存在는 葛文王考에서 李基白敎授가 밝힌 바와 같이 沾解와 助賁은 世神葛文王(骨正)의 아들들로 奈解와는 從兄弟로서 같은 昔氏이면서 家系를 달리하였으며 獨立된 家系의 始祖로서 骨正은 葛文王으로 책봉된 것이다(李基白 1975 : 20).

五世親族集團 內部에 獨立된 家系를 이룩한 下部集團이 父方平行四寸婚을 行하였으니 奈解와 助賁王의 妹, 勁貴과 阿爾兮夫人 그리고 于老와 命元夫人의 婚姻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骨正과 伊買는 三世集團의 始祖들이며 三世集團인 下部單位가 通婚의 主體가 되었던 것이다.

基臨尼師今때에 이르러 地震과 水害가 연이어 財產과 人命의 損失이 많고(三國史記 卷2 基臨尼師今 七年條) 訖解尼師今 末年에 다시 水害를 보아 山이 13個所나 무너지는 天災로 말미암아(三國史記 卷2 訖解尼師今 41年條) 昔氏의 基盤이 무너지고 訖解가 아들이 없이 死亡하자 王位는 婿系인 金氏에게 繼承되었다.

昔氏를 이어 金氏로서 登場한 처음 王은 奈勿尼師今이다. 奈勿의 系譜를 보면 三國史記에는 仇道葛文王의 子인 未仇의 아들이라 하고 (卷3 奈勿尼師今 即位條) 三國遺事에는 奈勿의 父가 仇道葛文王 또는 未召王의 弟○○角干이라 하였다(王歷). 三國遺事의 未召王이 三國史記의 味

鄒王을 말할 것이 이로 미루어 奈勿은 仇道의 子인 未仇의 아들이라는 것이 보다 有利한 解釋이라 생각된다. 血緣의 出系는 仇道에서 由來되었다 하더라도 奈勿이 王位를 繼承할 수 있었던 것은 王妃가 味鄒尼師今의 女였기 때문일 것이다. 味鄒와 奈勿은 舅婿關係이기 때문에 사위에게 王位를 繼承토록 한 것이 되지만 한편 選系出系의 立場에서 보면 奈勿이 婦處制 居住에 따라 味鄒의 家族員이 되어 味鄒의 家族員으로서 王位를 繼承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同屬集團의 原理에 의한 王位의 繼承은 다음 王인 實聖尼師今의 경우도 같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實聖은 閼智의 裔孫이며 그의 父는 大西知伊飡이고 그의 母는 昔登保阿干의 女인 伊利夫人이다. 이것이 實聖으로 하여금 王位를 繼承할 하등의 條件이 되지 않는다. 大西知가 三國遺事에 따라 未鄒의 弟라면 實聖은 奈勿이 即位할 때와 같은 條件을 가진 셈이다. 特히 奈勿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實聖이 王位를 繼承한 것은 實聖이 味鄒의 사위이며 同屬集團의 繼承原理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實聖을 繼承한 訥祇는 親族의 系譜上 奈勿의 아들이며 實聖의 사위로서 王位를 繼承함에 손색이 없다. 그러나 政治的으로 實聖을 죽이고 王位를 탈취한 것이다. 奈勿이 王位에 있을 때 實聖을 高句麗에 人質로 보낸 것을 복수하기 위하여 實聖이 王位에 오르자 奈勿의 아들 訥祇를 죽이려 하였으나 오히려 訥祇는 實聖을 죽이고 王位에 올랐다(三國史記 卷3 訥祇尼師今 即位條).

實力으로 王位를 쟁취한 訥祇는 政治的으로는 專制的 王權을 强化하기 위하여 大輔를 임명치 않고 麻立干이란 位號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親族 內部에서는 長子直系繼承原理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訥祇를 繼承한 慈悲, 慈悲를 繼承한 炤知가 모두 前王의 長子들이다.

한편 直系王室을 强化하고 同族 內에 分派의 分化作用을 방지하고 同族을 强化하기 위하여 兄弟들의 小集團間에 近親婚을 行하였다. 慈悲麻

立干의 妃는 訥祇의 弟인 未斯欣의 女이니 이것은 父方平行四寸婚이다. 習寶와 烏生夫人은 三寸間의 婚姻이고 炤知麻立干과 善兮夫人은 五寸間의 婚姻이다.

炤知麻立干에 이르러 2代 南解次次雄 以來 諸王이 祭祀를 올렸던 始祖廟 以外에 다시 奈乙神宮을 建立한 것도 金氏集團의 政治的인 强化와 同時에 直系祖上을 보다 높은 次元으로 승격시켜 王室親族集團 中에서도 直系觀이 上位에 있음을 祭祀權을 通하여 正當化하려는 意圖에서 그리하였을 것이다(申瀅植 1971 : 91, 李基東 1972 : 183). 王妃의 父나 王의 父를 칭하던 葛文王이 訥祇 이후 王의 弟를 칭하게 된 것도 위의 傾向과 일치되는 것이니 長子繼承原理가 이루어지면서 王位繼承에서 除外된 王弟를 葛文王으로 추봉한 것이다(李基白 1975 : 22).

炤知麻立干이 아들이 없이 돌아가자 智證이 王位를 繼承하였다. 智證의 出系에 關하여 三國史記(卷 4)에는 智證이 奈勿의 曾孫인 習寶葛文王의 아들이라 하고 三國遺事(王歷)에는 그가 訥祇의 弟인 期寶葛文王의 아들이라 한다. 習寶를 奈勿의 曾孫이라면 習寶의 系譜가 分明치 않으며 특히 習寶의 烏生夫人과의 關係에 많을 뿐 아니라 史記에 그를 炤知의 再從弟라고 한것과도 一致하지 않는다. 따라서 習寶를 訥祇의 弟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李基東 1972 : 14), 智證麻立干의 후는 그의 元子인 法興王이 繼承한다.

親族制度에서 큰 變動을 가져온 것은 訥祇麻立干이 起點이 되며 그以前까지 繼續되던 選系出系에 의한 兄弟相續的인 優秀者 繼承原理가 없어지고 父子相續的인 長子繼承이 始作된다. 그러나 五世親族 集團은 그대로 存在하였으니 炤知에게서 創立된 神宮은 味鄒를 始祖로 하는 五世親族集團이 祭祀集團으로 되었으며 (邊太燮 1964 : 62)한편 金氏만을 王妃로 삼는 機能集團으로 存在하였다. 智證麻立干의 경우 例外的으로 朴氏夫人을 맞았으나 그가 支派이기 때문에 또는 政治的 理由로 朴氏와 通婚하였을 뿐이지(金哲埈 1952 : 34) 智證이 味鄒를 中心한 五世集團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또 뒤에 보듯이 새로운 五世集團의 始祖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五世親族集團 內部의 分派의 分化作用으로 인한 小集團의 分立은 여전히 繼續되었으며 이들은 通婚의 主體가 되어 서로 女子를 交換하였다.

Ⅱ. 中代의 親族體系

王號가 麻立干에서 王으로 된 23代 法興王으로 부터 武烈系에서 奈勿系로 바뀌는 과도기의 王인 37代 宣德王까지를 中代라 하여 보기로 한다. 이것을 分析의 편의상 法興王에서 武烈王까지 그리고 文武王에서 宣德王까지의 二期로 나누어 본다.

23代 法興王은 智證麻立干의 元子로 智證이 돌아가자 王位를 繼承하였다. 法興王은 百官의 公服을 定하고 佛法을 公行케 하고 年號를 使用하고 貴族會議의 議長을 上大等에게 맡기며(李基白 1975 : 95) 麻立干 대신 王號를 使用하는등 政治上 王權强化에 注力하였다. 그러나 親族集團의 立場에서는 金氏로 王妃를 삼던 傳統을 깨고 朴氏를 王妃로 맞아 새로운 王妃族을 이룩하며 새로운 支派로서 宗을 形成하였다. 그러나 親子로서 王位를 繼承시키지 못하고 다음 王은 그의 姪子가 繼承한다.

法興王을 繼承한 眞興王은 法興의 弟인 葛文王 立宗의 아들이며 그가 即位하였을 때 그는 七歲(三國遺事에는 15歲라 함)라는 年少者였기 때문에 王太后가 攝政하였다. 眞興王은 父系로 보면 叔姪關係에 의한 王位繼承이고 法興이 無子이기 때문에 直系繼承의 原理에 의한 繼承이다. 그러나 眞興의 母는 法興王의 女인 只召夫人이다. 따라서 母系로 말하면 眞興王은 外祖父에게서 王位를 받은 것이 된다. 外祖父가 外孫子에게 地位를 繼承시키는 것이 女息을 媒介로 하는 繼承이라는 面만을 보면 外孫子의 立場에서 母系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같이 보이지만 女

息인 母를 除外하면 男子에서 男子로 繼承한 것이기에 男系的이라고 도말할 수 있다. 그러나 單系的(unilineal)인 次元에서 떠나 選系的(ambilineal) 立場에서 보면 한世代에서 다음 世代의 繼承者를 定함에 男女의 性別差別을 두지 않는다는 것과 아들이 없을 경우 딸에게 繼承시키되 딸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繼承시킨다는 男系에 편중된 選系出系, 女系出系의 原理에 의한 王位의 繼承이다. 다시 말하면 外祖一外孫의 地位 繼承이나 相續은 選系出系原理에 의한 것이다.

眞興王은 長子 銅輪을 王太子로 定하였으나 銅輪은 일찌기 死亡하여 眞興王이 돌아가자 그의 次子인 舍輪이 即位하여 眞智王이 되었다.

眞智王은 在位 4年의 短期로 돌아가고 그의 뒤를 眞平王이 繼承하였다(三國史記 卷4 眞平王 即位條). 그러나 三國遺事(卷1 桃花女 鼻荊郎項)에는 治國 4年에 政事가 어지럽고 荒淫하여 國人이 그를 廢出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長子系인 銅輪系와 次子系인 眞智系 사이에 모종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眞智王이 물러나고 長子系의 眞平王으로 繼承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眞平王의 即位는 長子直系繼承原理가 作用한 것이며 이것이 앞서 본 訥祇麻立干을 1次 變革임에 對하여 親王體系上의 2次 變革이라 말할 수 있겠다.

眞平王이 아들없이 돌아가자 그의 長女인 善德王이 王位를 繼承하였다. 善德女王의 即位를 혹 女系 母系의 繼承으로 보지만 이것은 오히려 男女를 區別하지 않고 直卑屬에게 地位를 繼承시킨다는 選系的 繼承原理에 의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善德女王의 뒤를 繼承하여 王位에 오른 사람이 眞平王의 同母弟인 國飯葛文王(三國遺事에는 國基安葛文王)의 女인 眞德女王이다. 善德女王에게 子女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게 女同生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出嫁하였기 때문에 이미 다른 親族集團에 속하 것이며 直系의 原理에 의하면 序列上 眞德女王이 가장 적임자였을 것이다.

眞德女王의 뒤를 이어 即位한 사람이 太宗武烈王이다. 武烈王은 眞智

王의 子인 龍春의 아들이기 때문에 前王과는 六寸間이며 特히 그의 母 天明夫人은 眞平王의 女로 親族體系上 당연한 王位를 繼承한 것이다. 그러나 武烈王이 即位할 때 일은 그리 順調로운 것은 아니였던 것이다. 前王인 眞德女王이 돌아가자 君臣들은 閼川에게 攝政을 請하였고 이에 對해 閼川은 사양하고 春秋公을 추천하였고 春秋公은 세번이나 사양하다 마지 못해 即位하였다(三國史記 卷5 太宗武烈王 即位條) 또한 眞德王까지를 聖骨이라 하고 武烈王부터 眞骨이라 하여 第一骨을 다시 나누어 區別하는 起點이 바로 武烈王이 된다(三國史記 卷5 眞德王 八年條). 武烈王의 即位와 聖骨 眞骨의 區分에 關하여 武烈王이 加耶系인 舒玄 廋信 父子와의 婚姻關係에 의한 것이라 보거나(末松保和 1954 : 14, 井上秀雄 1974 : 248) 이것으로 因한 政治的 理由(申瀅植 1971 : 82)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聖骨이나 眞骨등 骨의 內容은 여디까지나 出系律에 의하는 것이니 이것은 親族體系上 直系傍系의 原理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라 생각된다(金哲埈 1952 : 97, 1975 : 169).

武烈王까지를 包含하는 智證系 金氏親族集團의 範圍는 이들이 朴氏王妃族과 通婚하는 集團으로 存在한다. 이럴 경우 智證부터 武烈까지는 六代가 된다. 그러나 智證은 直系가 法興王에서 단절되며 앞서 본 味鄒를 始祖로 하는 集團의 五世 以內에 속하기 때문에 이곳의 集團은 葛文王의 칭호를 갖고 別系를 이룩한 立宗을 始祖로 五世親族集團을 이룩하는 것이다.

일단 成立한 五世親族 內에서 王位를 繼承시키는 親族體系는 立宗을 始祖로 하여 武烈王까지 繼續된 것이며 이런 意味에서 善德女王이 即位하고 그를 모반 하면서 다시 眞德女王이 即位하는 것을 理解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善德과 眞德은 立宗을 始祖로 하는 五世親族集團 內에 속한다. 武烈도 이러한 親族集團에 속하면서 眞骨로 區別되는 것은 眞平王때에 變革된 直系原理가 五世集團의 原理 上位에 있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直系의 原理는 後期王朝에서 볼 수 있는 男系的 直系가 아니라 前代에서 볼 수 있었던 選系的 直系였다. 그러기 때문에 女王이 두명이나 王位를 繼承한 것이다. 直系의 原理는 集團 內部의 分枝化 傾向性과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分派의 分枝化란 新羅 親族體系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며 立宗 五世親族集團의 時代에도 여전히 繼續하여 存在한다.

이때의 親族集團이 그 以前의 親族集團과 다른 것은 앞선 五世集團이 味鄒를 中心하였듯이 選系的 性格을 가졌는데 比해 立宗中心의 集團은 選系的 性格이 없어진 것과 訥祇의 親族體系 變革이 傍系를 包括하는 直系原理였음에 대하여 眞平의 變革은 傍系를 排除하는 直系原理였다. 그러나 直系에 男女를 區別하지 않는 選系出系的 性格은 아직 內包되어 있다.

武烈王의 뒤를 繼承하여 王位에 오른 사람이 武烈王의 元子인 文武王이다. 文武王의 母는 舒玄의 季女이며 金庾信의 女同生이다. 金庾信은 文武王의 外叔이니 外叔의 힘으로 三國統一을 이룩한 것이다.

文武王을 繼承하여 即位한 神文王은 文武王의 長子이다. 神文王의 母는 慈儀王后이다. 神文王은 太子로 있을 때 金欽突의 女를 妃로 맞이하였으나 아들을 낳지 못하고 父가 亂을 도모하여 그를 廢하고 後에 金欽運의 女를 妃로 맞이하였다(三國史記 卷8 神文王 即位條 三年條) 王의 再妃나 王妃를 여럿두는 一夫多妻制가 神文王에 처음 있는 것은 아니지만 文武王系 金氏王室에는 이 以後 一夫多妻制를 表面化시키는 傾向이 있다.

神文王代에 親族體系上 重要한 것은 神文王이 奈乙神宮 以外에 祖廟를 創立한 것이다. 太祖大王, 眞智大王, 文興大王(龍春), 太宗大王, 文武大王의 五位를 모셔 祖廟를 세웠다(三國史記 卷8 神文王 七年條) 이것은 이른바 五廟制로서 直系에 따른 家祖를 昇化시킨다는 意味에서 國家的으로는 王權의 强化가 되고 親族體系에서는 正統性을 强調

하는 意味가 된다(邊太燮 1964 : 69). 이것을 金敎授는 家父長的 家族編制의 强化라고 表現하였다(金哲埈 1975 : 171). 直系家祖의 昇化는 한편 大王의 추호로도 알 수 있다. 葛文王으로 불리울 수 있는 王의 父가 大王으로 불리우는 것도 이 以後부터 이다(李基白 1975 : 15).

神文王을 繼承한 王이 그의 太子인 孝昭王이다. 孝昭王은 아들이 없었고 그가 돌아가자 그의 同母弟인 聖德王이 即位하였다. 三國史記에는 分明치 않으나 三國遺事에 의하면 聖德王은 先妃 陪昭王后와 後妃 占勿王后를 두었다(三國遺事 王歷).

聖德王은 長子 重慶을 太子로 삼었으나 일찌기 死亡하여 第二子인 承慶을 太子로 하였고 聖德王이 돌아가자 承慶이 即位하여 孝成王이 되었다(三國史記 卷8 十四年條, 二十三年條, 卷9 孝成王 即位條). 孝成王 在位 6年만에 아들이 없이 돌아가자 그의 同母弟인 景德王이 王位를 繼承하였다(三國史記 卷9 景德王 即位條).

景德王의 뒤를 이어 王位에 오른 사람은 景德王의 嫡子인 惠恭王이다. 그는 即位하였을 때 8歲의 年少者였기 때문에 太后가 攝政을 하였다(三國史記 卷9 惠恭王 即位條) 惠恭王은 壯成하면서 淫蕩聲色하고 巡遊가 不節하여 紀綱이 문란하고 異變災害가 빈번하여 人心이 反하더니 上大等 金良相등이 모반하여 王은 殺害되었다(三國史記 卷6 惠恭王 16年條)

惠恭王의 뒤를 繼承한 사람이 宣德王이다. 宣德王은 上大等 金良相이니 奈勿王의 10世孫이며 父는 孝芳이다. 이렇게 父系로만 보면 武烈系와 關係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의 母인 四炤夫人은 聖德王의 女이며 母系로 하여 宣德王은 惠恭王의 姑從四寸이 된다. 外家로 宣德王은 武烈系親族集團에 속하지만 武烈系는 惠恭王으로서 끝난 것이다.

武烈王을 始祖로 하는 親族集團은 世代數로 六代가 繼續되었다. 이것은 五世親族集團의 範圍가 無視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親族集團의 範圍가 無視된 것은 下部單位로서 存在하던 三世代 少集團이 直系祖上을 强調하는데서 由來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祖廟의 存在로

理解될 수 있다. 五位를 奉하는 祖廟가 항상 中始祖인 武烈王을 五廟에 包含하더니 武烈王이 四代를 넘게 되는 惠恭王은 五廟制를 改定하여 武烈王과 文武王을 不遷의 宗으로 하고 直系로 考祖二位만을 奉하였다(邊太燮 1964 : 70).

武烈系 王室集團의 特色은 무엇보다 王位繼承의 序列이 明確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王位를 반드시太子를 封하고 太子에게 繼承시키며 太子는 長子를 原則으로 하고 長子가 일찍 死亡하면 次子를 太子로 封하였다. 따라서 王位繼承은 長次子 序列에 따르고 長子繼承을 原則으로한 것이다. 이것을 地位繼承의 세번째 變革이라 할 수 있으니 眞平王 때에 이루어진 傍系排除的 直系原理는 武烈王을 起點으로 長子優對直系原理로 變革된 것이다.

Ⅲ. 下代의 親族體系

三國史記의 下代는 37代 宣德王에서 始作되지만 親族關係의 系譜上 38代 元聖王부터 下代로 하였다. 따라서 下代는 元聖王에서 末王인 56代 敬順王까지의 時期로 한다. 이 時期를 分析의 편의상 둘로 나누어 우선 47代 憲安王까지를 보고 48代 景文王부터 敬順王까지를 다음에 보기로 한다.

37代 宣德王이 在位 6年만에 아들이 없이 돌아가자 그의 뒤를 繼承하여 即位한 사람이 元聖王이다. 元聖王은 宣德王을 도와 惠恭王을 殺害하는데 功이 있어 宣德王이 即位하자 上大等에 있었고 宣德王이 돌아가자 即位하였다. 따라서 元聖王의 王位繼承은 親族關係가 없는 政治的인 繼承이었다. 政治的이라는 것을 말하여주는 內容이 三國史記(卷10 元聖王 即位條)나 三國遺事(卷2 紀異 元聖大王條)에 같은 內容으로 記錄되어 있다. 즉 群臣들은 王의 族子인 周元을 세우려 하였으나 그의 집이 河川 北쪽에 있었고 때마침 갑자기 내린 비로 渡江이 어려워 上大等

인 敬信을 王으로 하였으니 이가 곧 元聖王이다.

元聖王은 奈勿王의 12世孫이며 그의 母는 朴氏 繼烏夫人이다. 따라서 前代의 武烈王系와도 다르며 前王인 宣德王과도 系譜가 다르다. 그는 即位하자 考에서 高祖까지 四代를 追封하여 高祖를 玄聖大王, 曾祖를 神英大王, 祖父를 興平大王, 父親을 明德大王이라 하였다. 이것은 王廟制의 觀念에서 나온 直系尊屬의 昇格化인 것이다(三國史記 卷10 元聖王 即位條元) 聖王은 또한 直系卑屬의 繼承原理를 確定하려고 하였으니 처음 仁謙을 세워 太子로 封하였고 그가 죽자 다음 아들인 義英을 太子로 封하였으며 그가 죽자 仁謙의 아들 俊邕을 太子로 封하였다.

元聖王이 돌아가자 그의 孫子이며 太子인 俊邕가 即位하여 昭聖王이 되었다. 그는 即位 2年에 아들 淸明을 太子를 封하고 돌아갔다. 昭聖王의 뒤를 이어 即位한 王이 哀莊王이다. 哀莊王은 13歲로 年少함으로 그의 叔父인 兵部令 彦昇이 攝政하였다. 哀莊王 10年에 彦昇은 同生 悌邕과 더불어 亂을 일으켜 哀莊王과 그의 弟를 殺害하고 王位를 빼앗았다. 이로서 元聖王 以來 三代를 繼續한 直系繼承이 끝나고 말았다.

憲德王이 돌아가자 그의 同母弟인 秀宗이 即位하여 興德王이라 하였다. 憲德王이 在位時 太子妃를 맞이하였다 하나(三國史記 卷10 憲德王 14年條)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지는 分明치 않다. 興德王의 即位는 이른바 兄弟繼承이다.

興德王이 돌아가자 僖康王이 即位하였다. 僖康王은 元聖王의 孫子인 憲貞의 아들이니 仁謙系와는 다른 그의 弟 禮英系에 속한다. 僖康王의 系譜보다 그가 即位하는데는 엄청난 鬪爭에 의한 것이니 興德王이 돌아가자 그의 從弟인 均貞과 均貞의 兄의 子인 悌隆과의 사이에 對立이 생겼다. 均貞은 阿飡 祐徵, 禮徵, 金陽등이 후원하였고 忠恭의 사위인 悌隆은 그의 妻男인 金明, 阿飡 利弘, 裴萱伺등이 후원하였다. 이 싸움에서 均貞派가 敗하자 悌隆이 即位하니 이가 즉 僖康王이다(三國史記 卷10 僖康王 即位條).

僖康王은 王位에 오른지 1年만에 妻男인 上大等 金明의 叛亂이 있어 自殺을 하였다. 金明은 忠恭의 아들이니 僖康王이 王位에 오를 때 그를 도와준사람이었다. 金明이 即位하여 閔哀王이라 하였다. 閔哀王의 即位로 禮英系로 갔던 王位는 다시 仁謙系로 온 것이 된다.

閔哀王은 即位한지 1年만에 祐徵에게 殺害되었으니 祐徵은 悅隆과 金明에게 敗한 均貞의 아들로 均貞이 敗하자 清海鎭의 張保皐에게 의탁하여 父를 위해 복수한 것이다. 祐徵은 即位하여 神武王이라 하였으니 이로써 王位는 仁謙系에서 다시 禮英系로 왔으며 禮英系 內에서는 惠貞系에서 均貞系로 온 것이 된다.

그러나 神武王도 即位한지 1年을 넘기지 못하고 金明을 도왔던 利弘을 의식하여 등창이 나서 죽고 말았다. 神武王이 돌아가자 그의 아들 文聖王이 即位하였으니 5代에 걸쳐 武力으로 王位를 爭取하는 王位의 繼承은 끝이난 것이라 하겠다.

文聖王이 돌아가자 憲安王이 即位하였다. 이것은 文聖王의 願命에 의한 것이며 憲安王은 神武王의 異母弟이니 文聖王의 叔父에 해당된다.

以上 諸王의 繼承關係를 보면 元聖王에서 哀莊王에 이르는 三王 四世代가 前代 武烈系 때와 같은 直系繼承을 하였다. 그러나 憲德王이 哀莊王 즉 姪子로 부터 王位를 빼앗은 후 興德王의 即位와 같은 兄弟繼承이 있었으나 모두 前王을 殺害하거나 自殺등으로 因해 王位의 爭奪의 手段으로 이어져 간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繼承原理가 있는 것이 아니다.

王位의 爭奪戰은 前代까지 있어오던 王世親族集團 內部의 下部單位로서의 少集團이 즉 家系가 前代 武烈系 王室時代에 直系의 硬化作用하더니 元聖王 以後 이것이 極限의 對立競爭의 樣相으로 化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前代의 少集團이 序列化와 直系尊屬의 昇格化 傾向이 昇格化 作用은 유지하면서 序列化는 無視하고 亂立하는 것이 이 時期의 親族體系의 特徵이라 하겠다. 直系尊屬의 昇格化는 王의 父나祖父가 王이 아니었으며 바로 大王으로 追封을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家系的 少集團이 亂立하면서 王位爭奪戰을 벌리고 派는 또 다음 代에 派를 만들어 集團 內部의 分派化過程은 極에 달한 느낌이 있으나 그러는 사이에도 上代에 있었던 五世親族集團과 類似한 集團의 範圍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즉 元聖王을 始祖로 하는 文句로서 崇福寺碑文에 "烈祖元聖大王"이란 것이 있으며(末松保和 1954 : 31) 또 亂立鬪爭하던 王들의 世代를 보면 모두 元聖王의 曾孫代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文聖王이 王位를 물려준 憲安王도 元聖王의 曾孫代에 속한다. 다시 말하면 王位爭奪戰도 元聖王을 頂點으로 하는 四世親族集團 內에서 行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이러한 意識이 있었는지는 分明치 않으나 만일 元聖王을 始祖로 하는 同族의 意識이 있었다면 그것은 上代五世親族集團의 復活이며 그것은 또한 不完全한 形態를 가진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때의 親族集團은 同屬的(ramage) 性格이 없고 父系宗族的(lineage) 性格을 가졌다.

憲安王이 돌아가고 48代 景文王이 即位하였다. 景文王은 僖康王의 子인 啓明의 아들이며 그의 母는 神武王의 女 光和夫人이다(三國遺事 王歷). 景文王은 이와같이 僖康王系와 神武王系를 統合하였기 때문에 王位에 오를 資格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景文王의 王妃가 前王인 憲安王의 女라는 것이 더 有利한 條件일 것이다.

景文王이 돌아가자 그의 太子인 憲康王이 即位하였다. 憲康王은 아들이 없이 돌아가고 그뒤를 그의 同生인 定康王이 即位하였다. 定康王은 即位한지 一年도 못되어 病으로 돌아가고 그의 願命에 따라 그의 妹인 眞聖女王이 即位하였다

眞聖女王은 即位 11年 6月에 그의 甥姪 嶢를 太子로 삼고 禪位를 決心하고 12月에 돌아갔다. 嶢는 定康王의 아들이니 이가 即位하여 孝恭王이라 하였다. 孝恭王은 朴氏 乂謙의 女를 맞아 王妃로 삼았고 아들이 없이 돌아가자 國人은 孝恭의 妻男이며 憲康王의 사위인 神德王을 即位시켰다. 神德王은 阿達羅王의 後孫이며 神德王으로 因하여 王位가 金氏

에서 朴氏로 이양되었다.

神德王이 돌아가자 그의 長子인 景明王이 即位하였다. 景明王이 돌아가자 그의 同母弟인 景哀王이 王位를 繼承하였다. 景哀王은 甄萱에게 不意의 습격을 받아 廢位를 당하고 그 뒤를 이은 이가 敬順王이다. 甄萱에 의해 即位한 敬順王은 나라를 들어 高麗 太祖에게 降服하여 新羅는 56代로서 끝나게 되었다.

以上 景文王으로 부터 敬順王에 이르는 8王의 繼承關係를 보면 景文王이 女婿로 繼承되었고 景文王에서 憲康王은 父子繼承이지만 그후兄弟繼承으로 된다. 女婿의 繼承은 上代에서 본 바와 같이 同屬集團에서 볼 수 있는 選系出系的인 繼承原理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選系的 繼承은 定康王에서 眞聖女王에로의 繼承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眞聖女王의 即位는 兄弟繼承이지만 選系的 性格의 兄弟繼承이라 하겠다. 選系的 性格은 神德王의 即位에서 더욱 明確하게 볼 수 있다.

神德王이 即位하여서는 直系繼承의 原理가 다시 대두된다. 그러나 이것도 바로 二代를 넘지 못하고 王系가 끝히고 만다. 王系가 끊기고 마니 이곳에서 親族集團의 範圍를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特徵的인 것은 少集團의 分派化가 심하지 않는 것이다.

結　　論

56代에 걸친 新羅의 王의 繼承關係를 中心으로 新羅王室의 親族集團을 分析하여 보았다. 親族集團이란 親族의 範圍도 包含되지만 그것보다 重要한 것은 親族集團의 性格이니 이것이 무슨 原理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內部構造는 어떠하며 地位의 繼承原理는 어떠한가 등을 問題삼는 것이니 이것을 親族體系라 하였다.

新羅의 親族體系를 分析함에 從來 學者들이 分析槪念으로 하던 宗族(lineage)이란 槪念을 使用치 않고 보다 有利하리라 생각되는 同屬

(ramage)이란 槪念을 使用하였다. 그리고 56代에 諸王을 편의상 三時代를 區分하여 分析하였다.

始祖 朴赫居世로 부터 23代 法興王까지 上代에 속하는 時期의 親族集團은 五世親族의 範圍로 하는 것이 特色이었다. 따라서 朴氏 集團, 昔氏 集團, 金氏 集團이 모두 五代限에서 王位를 繼承하였고 또 이들은 하나의 集團으로 他集團과 通婚群을 이루는 單位로서 機能하였다.

이 集團들은 무엇보다 同屬的(ramage) 性格을 갖고 있는 것이 特色이다. 그것은 集團員의 歸屬(affiliation)에 있어 父系出系의 原理와 同時에 選系的 原理를 갖고 있는 것과 集團 內部의 少集團의 分枝化現象이다. 分枝化한 少集團은 三世集團으로 보다 넓은 五世集團 內에서 獨立된 單位로서 通婚의 單位를 이루고 있었다.

集團 內의 地位繼承도 同屬集團이 갖는 選系的 原理를 가졌으니 分枝된 兄弟뿐 만이 아니라 女婿까지를 包含하여 同世代 內에서 優秀者 繼承의 原理에 의하여 地位繼承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繼承原理에 變化를 가져오는 것이 上代 後期에 속하는 19代 訥祇麻立干 때이다. 이때부터 選系的 出系律이 없어지고 男系 直系의原理가 擡頭된다.

23代 法興王의 弟인 立宗을 始祖로 하는 中代 前期의 金氏 集團에서도 이러한 原理가 계속되더니 26代 眞平王에 이르러 第二의 變革期를맞이한다. 이것은 전과 같은 直系原理의 繼承律이지만 前의 것이 傍系를 包括하는 直系임에 對하여 第二變革期를 지난 直系는 傍系를 排除하는 直系原理이다.

그러나 中代 前期에는 五世親族集團이 存在하였고 選系的 出系律도 아직 保有하고 있었다.

親族體系에 보다 큰 變化를 초래하는 것은 武烈王系가 始作되는 中代後期이다. 이때는 五世親族集團이 와해되고 그 集團 內部에 있던 下部單位인 少集團이 强化되고 繼承律은 武烈王 以後 第三의 變革期를 맞는

다. 이것은 直系原理가 長幼의 序列에 의해 정돈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同屬的 性格은 完全히 없어진다.

38代 元聖王에서 始作되는 下代에 이르러 前期에는 直系長子優對의 原理가 繼續되더니 41代 憲德王의 政變으로 새로운 局面으로 접어든다. 새로운 局面이란 王位繼承의 混亂이며 少集團의 亂立이다. 이러한 親族體系上의 混亂이 46代 文聖王代에 이르러 平溫을 되찾는다. 이러한 混亂 속에서도 다시 上代로 돌아가는 느낌을 가지니 그것은 五世親族集團의 復活이다. 그러나 이것이 完形이라고는 할 수 없다. 特히 下代 後期에 注目되는 것은 地位繼承에 同屬的 性格이 다시 擡頭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金富軾 三國史記

一 然 三國遺事

金光洙

1973 新羅上古世系의 再構成 試圖, 東洋學 3輯 pp. 363～391.

金斗憲

1969 韓國 家族制度研究. 서울, 서울 大出版部

金庠基

1936 葛文王考, 震檀學報 5卷 pp. 182～201

金壽仁

1967 新羅의 政治制度研究, 慶北大學校論文集 11輯 pp. 109—140

金哲埈

1952 新羅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 上, 歷史學報 1輯 pp. 15～47. 下, 歷史學報 2輯 pp. 80～113.

1962 新羅上古世系와 그紀年, 歷史學報 17・18輯 pp. 151～199.

1962 新羅貴族勢力의 基盤, 人文科學 7輯 pp. 269～294.

1964 韓國古代國家發展史, 韓國文化史大系 Ⅰ. pp. 455～546.

1964 后三國時代의 支配勢力의 性格에 對하여, 李相伯博士華甲紀念論文集 pp. 249～268.

1968 新羅時代의 親族集團, 韓國史研究 Ⅰ輯 pp. 638.

1975 韓國古代社會의 性格과 羅末麗初의 轉換期, 韓國古代社會研究, pp. 271～292.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 知識産業社

1976 韓國文化史論. 서울, 知識産業社

邊太燮

1964 廟制의 變遷을 通하여 본 新羅社會의 發展過程, 歷史教育 8輯 pp. 56～76

申瀅植

1971 新羅王位 繼承考, 惠庵柳洪烈博士華甲紀念論叢 pp. 37～92.

沈鴻俊

1965 新羅王室의 婚姻法則, 曉城趙明基博士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pp. 295～362.

李基東

1972 新羅奈勿三系의 血緣意識, 歷史學報 53・54輯 pp. 1～38.

1975 新羅中古時代 血族集團의 特質에 관한 諸問題, 震檀學報 40號 pp. 43～60

李基白

1958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社會科學 2號 pp. 75～98.

1975 新羅政治社會史研究. 서울, 一潮閣

1975 韓國古代史論. 서울, 探求堂

李德星

1949 朝鮮古代社會研究. 서울, 正音社

李丙燾, 金載元

1958 韓國史 古代篇. 서울, 乙酉文化社

李佑成

1965 新羅時代의 王土思想과 公田—大崇福寺碑 및 鳳巖寺 智證碑의 一考—, 曉城趙明基博士 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 pp, 217～226.

1974 高麗時代의 家族——親族集團社會編制問題와의 關聯에서——, 第四回 東洋學 學術會議 講演鈔——韓國中世文化의 特性 Ⅰ. pp. 21～27.

1962 斯盧六村과 六村人의 出自에 對하여, 歷史學報 17・18 合輯 pp. 413～436.

丁仲煥

1969 新羅聖骨考, 李弘稙博士回甲 紀念 韓國史學論叢 pp. 33～52.

崔在錫

1968 韓國古代家族에 있어서의 母系父系의 問題, 韓國社會學 4輯 pp. 71～78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 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井上秀雄

1974 新羅の 骨品制度, 旗田 魏編 古代の 朝鮮 pp. 242～261.

武田幸男

1974 新羅骨品制の 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册 pp. 111～214.

木下禮仁

1974 新羅始祖系譜の 構成——金氏始祖を中心として——, 旗田魏編 古代の朝鮮 pp. 227～241

白鳥庫吉

1896 朝鮮古代王號考, 史學雜誌 7編 2號 pp, 106～124

1896 朝鮮古代官名考, 史學雜誌 7編 4號 pp. 271～275

旗田魏, 井上秀雄編

1974 古代の朝鮮. 東京, 學生社

Bohannan P. & J. Middleton ed.

1968 Kinship and Social Organization. Garden City, The National History Press

Buchler I. R. & H. A. Selby ed.

1968 Kinship and Socal Organiz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 N.Y., The Macmillan Co.

Evans-Pritchard E. E.

1968 Descent and Kinship, in Bohannan P. ed. Kinship and Social Organization pp. 151～154.

Firth R.

1968 A Note on Descent Group in Polynesia, in Bohannan P. ed, Kinship and Social Organization pp. 213～223.

Forde D.

1968 Double Descent among the Yakö, in Bohannan P. ed. Kinship and Social Organization. pp. 178～191.

Fox R.

1967 Kinship and Marriag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Freeman J. D.

1968 On the Concept of the Kindred, in Bohannan P. ed. Kinship and Social Organization, pp. 255～272.

Gifford E. W.

1968 Miwok Lineage, in Bohannan P. ed. Kinship and Soical Organization, pp. 171～178.

Goodenough W. H.

1968 A Problem in Malayo-Polynesian Social Organization, in Bohannan P. ed. Kinship and Social Organization, pp. 195~221.

Leach E. R.

1951 An Alternative Theory, Journal of the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Vol. 81. pp. 24~29, 51~53.

Mead, M.

1968 The structure of Mundugumor Society, in Bohannan P. ed. Kinship and Social Organization, pp. 225~231.

Middleton J. and D. Tait

1968 The Lineage and the Lineage System, in Bohannan P. ed. Kinship and Social Organization pp. 155~159.

Murdock G. P.

1968 Cognatic Forms of Social Organization, in Bohannan P. ed. Kinship and Social Organization pp. 235~253.

Needham R. Ed.

1971 Rethinking Kinship and Marriage. London, Tavistock Publ.

Schusky E. L.

1966 Manual for Kinship Analysis. N. Y., Holt, Rinehart & Winston.

Kinship System of the Silla Royal Families

Lee Kwang-Kyu

Among the three kingdoms in ancient history in Korea, there are only a sufficient materials for Silla for the study of kinship. Most of the studies of kinship of Silla are based on the descent theory and concentrated in the analysis of clan organization, lineage structure and marriage regulations. There are always some delicate problems when the Silla kingroup is considered as a clan or lineage, because there are some endogamy and female succession of throne which are considered as exceptional phenomena for the clan or lineag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reexamine the character of kin groups in Silla, using the concept of ramage by W.H. Goodenough including the concept of affiliation and descent.

The Silla dynasty could be divided into seven periods according to the ruling family, mode of succession, and affinal relationship. The fist period of Silla dynasty is the period of Park, which covers 8 kings from Hyok-go-sae. The rule of throne succession in these period was characterized by succession of the best able man among the sons and son-in-law. This could be said as the ambilineal descent or cognatic descent. The son-in-law who is not the consanguneous descendant becomes as a member of the descent group of his father-in-law by the ambilocal rule of residence. Namely the affiliation of the membership was different from the descent. The kinship group of Silla royal

families therefor had the characteristics of a cognatice descent group or ramage.

The ramage was composed with five generations. In this cognatic descent group there are several sub-groups which is composed by the direct descendents of the each brothers. These sub-groups were the authonomus units or independent units for the marriage exchange among themselves. The marriage system in this case was the generalized exchange system.

The second period was the period which was ruled by the Suck's family. There were altogether 8 kings in this period, but the generation continued only 5 generations as in the first period.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among the kings in this period was the rule of following the best qualified man among the candidates which include male offspring and son-in-law who was affiliated by matrilocal residence. The sub-units of the descent group functioned as the unit of marriage exchange and the marriage exchange was the generalized exchange as earlier period.

The third period was the first period of Kim's families which continued until the last king of Silla dynasty. During this period there were several changes from the aspect of kinship. The rule of succession which was characterized by the best qualified succession in earlier time was changed into the father-son succession. The royal families took the queens from the Kim's families which have the same surname as the royal family but belong not to the same clan. The royal shrine was established newly in this period. All of these phenomena were characterized by the centralization of power of the royal family.

The fourth period began from the Bob-hung, the 23th king. He has the surname Kim and succeed his father, but he brought his wife from Park's families. The descent group which began from Bob-hung was characterized by the marriage union with the Park's families. During this period the succession of the first son was more emphasized than earlier time. And this rule was changed into the first born offspring succession when there were no male offspring, which brought two queens who rule the dynasty.

The fifth period began from the Mun-mu, the 30th king. The descent group which ruled this period took the Kim's family as marriage partner. Polygamy was one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marriage system in this period. Besides the royal shrine, there were ancestor shrine for the royal families. These symbolize the the special enforcement of the direct descendent and regitimatization of the descendent of the royal family. One of the another phenomenon which shows this characteristic was the nomination of the crown prince.

The sixth period began from the Sun-dok, the 37th king. This period was characterized by the political succession of the throne which has no connection with kinship relationship. In other words, it was a kind of warrior period. The throne were taken over by the next kings by ways of killing the earlier one. This conflicts resulted from the enforcement of the sub-units of the descent group.

The seventh period began from the Kyong-mun, the 48th king, and continued until the last king. This period was characterized by the reestablishment of the earlier tradition of rule of succession and characteristic of cognatic descent group.

From the above analysis we can conclude the characteristic of the

kinship system of the Silla royal familes as follows: the descent group was cognatic descent group or ramage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affiliation of son-in-law and the succession of the throne by the best able man among the candidates. The ramage was composed with the five generations. The sub-groups within the descent group were independent units which function as the unit of marriage exchange among them.